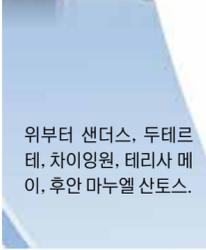


# 힐러리 위협한 샌더스 vs 트럼프 못넘은 힐러리



## 뜬 별

◇ 버니 샌더스 = 미국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으나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경선에 출마, 돌풍을 일으키며 '무모한 도전'을 '절반의 승리'로 일궈낸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물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론'을 위협한 그는 비록 패배했으나, 이후에도 열성적 지지자를 몰고 다니며 대선 본선에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위부터 샌더스, 두테르테, 차이잉원, 테리사 메이, 후안 마누엘 산토스.

나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경선에 출마, 돌풍을 일으키며 '무모한 도전'을 '절반의 승리'로 일궈낸 상원의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젊은층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거물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론'을 위협한 그는 비록 패배했으나, 이후에도 열성적 지지자를 몰고 다니며 대선 본선에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클린턴이 분노한 샌더스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대학 무상교육 등 그의 공약을 본선 공약에 상당수 반영하면서 샌더스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범죄·부패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6월 말 취임한 이후 '문지마시' 마약 용의자 처형과 거침없는 반미, 친중 행보로 국제사회를 뒤흔든 필리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 6000명에 가까운 마약 용의자를 사살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초법적 처형으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필리핀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등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거친 언행을 일삼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 맞섰던 중국에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등 '독자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차이잉원=지난 5월 취임한 대만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통이자 중화권 첫 여성지도자. 산악거주 대만 원주민인 파이완(排灣)족 혈통으로 소수민족 가정의 첩의 딸에서 대만의 지도자에 올랐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압승하며 8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민주진보당의 최고 지도자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가 성사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는 1979년 미국과 대만 간 공식적 단교 이후 37년 만이었다.

◇테리사 메이=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몰러난 데이비드 캐머런의 뒤를 이어 지난 7월 취임한 영국 총리.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이후 26년 만에 나온 영국의 여성 총리로 브렉시트를 선택한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영국을 이끌 중책을 맡았다. 보수당 5선의 중진으로 야당 시절인 1998년 이래 예비내각 요직을 두루 거쳐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지난 10월 선출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포르투갈 사회당 정치인 출신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인 자국에서 1995년~2002년 총리를 지냈다. 국제무대에서는 '난민 전문가'로 통한다. 2005~2015년 유엔 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지냈다. 선진국들이 난민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제9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콜롬비아 대통령.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9월 현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1964년 농민 반란으로 시작돼 52년간 콜롬비아에서 계속된 내전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으나, 이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콜롬비아 평화협정의 정신을 지켜 평화를 이어가라는 격려의 의미에서 산토스 대통령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와 FARC는 재협상에 나섰고, 지난달 52년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

## 진 별

◇힐러리 클린턴=미국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했으나 주류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분노의 벽을 넘지 못한 민주당 대선후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로, 연방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2008년 대선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대권에 도전, 미국 주요 정당의 첫 여성 대선후보가 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아웃사이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마테오 렌치=이탈리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부결의 책임을 지고 몰러난 이탈리아 전 총리.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을 통해 엔리코 레타 당시 총리를 끌어내리고 2014년 2월 22일 총리에 취임한 그는 지난 11월 중순 취임 1000일을 넘기며 역대 내각 중 4번째 장수 내각의 총리가 됐다. 그러나 그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개헌안이 12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면서 약 2년9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지우마 호세프=8월 31일 탄핵당한 브라질 전 대통령. 호세프는 2010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현직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며 당선됐다. 2014년 재선 승리로 브라질 사상 연임에 성공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1기 집권 시절인 2014년에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가리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는 등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탄핵 공세를 받았고, 결국 탄핵됐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세계 최장수 재위 기록을 가진 태국 국왕. 10월 13일 8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1927년 태어난 푸미폰 국왕은 1946년 제9대 태국 국왕으로 즉위해 70년 126일간 왕위를 유지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구심점 역할을 해 태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푸미폰 국왕의 왕좌는 그의 유일한 아들인 마하 와치랄롱꼰(64) 왕세자가 물려받았다.

◇무하마드 알리=20세기 최고의 복서. 6월 3일 74세로 별세했다. 그는 12세 때 아마추어 복서 생활을 시작해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후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바꾸고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며 프로로 전향해 3차례에 걸쳐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는 등 1960~1970년대를 풍미했다. 알리는 은퇴 3년 만인 1984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 가족들 곁에서 숨을 거뒀다.

◇데이비드 보우=영국이 낳은 세계적 가수. 1월 10일 6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보우는 1970년대 '글램 록'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시자로 명성을 떨쳤으며, 20세기 가장 성공적인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1969년 발표한 곡 '스페이스 오디티'(Space oddity)'로 큰 명성을 얻었다. 그는 18개월간 암으로 투병하면서 도 1월 8일 자신의 69번째 생일에 맞춰 47번째 음반인 새 정규 앨범 '블랙 스타'(Blackstar ★)를 발표했다.

◇올베르트 예코=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이자 석학. 2월 19일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중에는 소설가로 주로 알려졌지만, 문학 뿐 아니라 역사와 철학, 수학, 기호학, 문화 비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약한 대표적 지성이다. 기호학자로서 일찍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1980년에 펴낸 첫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1988년 내놓은 두 번째 소설 '푸코의 추'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퍼 리 = 미국 '국민소설'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 2월 18일 89세로 별세했다. 1949년부터 뉴욕에서 항공사 예약장구 직원으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 1960년 첫 작품 '앵무새 죽이기'를 발표해 대성공을 거뒀고, 이 소설로 풀리처상까지 받았다. 지난해에는 '앵무새 죽이기'의 속편 격인 후속편 '파수꾼'을 출간해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다.

◇프린스=1980년대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등과 세계 팝 음악을 주도한 아티스트. 4월 21일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본명이 프린스 로저스 넬슨인 프린스는 7개의 그래미상을 받고 1억 장이 넘는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미국 팝의 전설이다. 프린스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아편계 진통제인 펜타닐의 과다투입에 따른 사고사로 드러났다.

◇앨빈 토플러=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미래학자. 6월 27일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사회로 이동해 갈 것을 예견했다. 1970년 글로벌 문명에 대해 쓴 '미래의 충격'은 50개국 이상에서 출간됐으며, '제3의 물결'(1980)은 새로 부상하는 문명을 조명하고 기업과 가족생활, 기술, 정치 변화의 고리를 고찰했다. 중국의 전 총리인 자오쯔양(趙紫陽), 소련의 전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등은 그를 멘토로 삼았으며, 우리나라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에 청와대에서 토플러와 의견을 나눴다.



위부터 무하마드 알리, 지우마 호세프, 마테오 렌치, 힐러리 클린턴.

샌더스, 미국 대선 경선 돌풍... '무모한 도전'서 '절반의 승리'로  
美 첫 여성 대통령 도전 힐러리, '아웃사이더' 트럼프에 충격패  
대만 첫 여성총통 차이잉원 뜨고... 무하마드 알리 '역사 속으로'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 도심속의 휴식공간
-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